

진리란 무엇인가? - 네 번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Jeff Pippenger

2023-09-09

1798년, 밀러파 역사의 시작에 다니엘서의 올래 강 환상이 봉함이 풀리면서 지식이 증가하였고, 그것은 예배자들의 두 부류를 시험하고 드러냈다. 올래 강의 환상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내적 메시지를 가리킨다. 1798년에 시작된 예언적 역사의 끝, 곧 1844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엑서터 야영회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감추어져 있던 진리에서 그분의 손을 거두셨을 때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메시지의 봉함이 풀렸고, 이로써 지식이 증가하여 예배자들의 두 부류가 시험되고 드러났다.

1989년에,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묘사된 대로 옛 소련을 대표하는 나라들이 교황권과 미국에 의해 휩쓸렸을 때, 다니엘서의 히데겔 강 환상의 봉인이 풀려 지식의 증가를 낳아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시험하고 드러냈다. 히데겔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외부의 기별을 나타낸다. 1989년에 시작된 예언적 역사의 끝에, 2023년 7월의 마지막 몇 주를 기점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감추어져 있던 진리 위에 두셨던 그분의 손을 거두심으로 밤중 외침의 기별의 봉인을 푸는 과정을 시작하셨고, 그로 인해 지식의 증가가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두 부류의 예배자를 시험하고 마침내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1.

몇 시간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체포되었고, 그 직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러나 그들은 크게 놀라 두려워하여 유령을 본 줄로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너희는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24:36-38.

개혁의 과정에서 첫 번째 실망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 계시된 진리를 잊어버릴 때 일어난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위기 속에서 그들의 두려움과 실망이 드러나기 불과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잊고 말았다. 첫 번째 실망 뒤에는 기다림의 때가 이어지는데, 이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의 부재로 상징된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다시 오시리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미리 알려 주신 말씀도 그들이 그 위기에 압도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열 처녀의 비유의 문맥에서 위기는 품성이 드러나는 자리일 뿐, 결코 형성되는 자리는 아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고, 그 사실을 위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남아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면 그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16.

그러나 그들이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그들이 위기에 압도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품성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가라" 하는 간절한 음성이 선포되었을 때, 잠자던 처녀들이 잠에서 깨어났고, 누가 그 일을 위해 준비했는지가 드러났다. 둘 다 뜻밖의 상황을 맞았지만, 한쪽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준비가 없었다. 품성은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 비상 상황은 품성의 진가를 드러낸다.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별, 위기, 뜻밖의 질병이나 고통, 곧 영혼을 죽음과 맞대면하게 하는 어떤 일이라도 품성의 내면의 실상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참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영혼이 은혜로 지탱되는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이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시험의 때는 모든 이에게 찾아온다.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는가? 우리의 등불은 꺼져 버리는가? 아니면 여전히 켜 두고 있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모든 비상시에 대비되어 있는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그들의 품성을 나누어 줄 수 없었다. 품성은 각자가 스스로 형성해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5년 10월 17일.

요한계시록 첫머리 구절들에서 지칭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교회에 주어지는 최후의 경고 메시지이며, 이후에는 온 세상을 향한다. 그 계시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5장에서 봉인된 책을 여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으로 밝혀진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봉인이 풀린다.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셔서 그 책을 열고 그 일곱 인을 떼실 수 있게 되셨다. 요한계시록 5:5.

유다 지파의 사자는 또한 "다윗의 뿌리"이시며, 또한 "다윗의 자손"이시고 또한 다윗의 주이시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타내는 그 연관성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어떤 진리를 봉인하거나 봉인 해제할 때,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로서 보여 주신 바와 같이 어떤 것의 시작으로 그 끝을 식별하는 "첫 언급의 법칙"을 사용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을 밝힌다. 진리가 종말의 '한' 때에 봉인 해제될 때, 다니엘 12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결의 과정이 시작된다.

책의 봉인을 떼고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들에 대한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셨다. 다니엘은 자신의 증언을 전하기 위해 자기 분깃에 섰는데, 그 증언은 우리의 세상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야 할 끝의 때까지 봉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이 마지막 때에 무한히 중요하지만, '많은 이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연단을 받을' 동안에도, '악인들은 악을 행할 것이요, 악인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제18권, 14, 15.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무한한 중요성을 지니지만, 그의 사역이나 봉인 해제된 메시지를 이해할 자는 "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가운데서도 "아무도" 없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이 말들은 끝의 때까지 닫히고 봉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겠으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요, 악한 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 12:9, 10.

시험의 과정은 '정결하게 됨, 희게 됨, 연단됨'이라는 세 단계로 표현된다. 이 세 단계는 '영원한 복음'의 세 단계를 나타내며, 이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정결하게 됨),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희게 됨),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연단됨)로 표현된다. 이 세 단계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 열세 번째 글자, 마지막 글자로 표현되는 '진리'이며, 그 글자들을 그 순서대로 결합하면 히브리어 단어 '진리'가 만들어진다.

그 세 가지 단계가 바로 '길'이다. 아삽이 시편 77편 13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길은 성소에 있으며, 그 성소의 뜰에서는 죄인이 피 흘림으로 정결하게 된다. 그 피는 그 후 성화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지며, 성화는 "희게 됨"의 과정이다.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내게 말했다. "흰 옷을 입은 이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내가 그에게 말했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로,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요한계시록 7:13, 14.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화된 죄인은 그때 지성소로 대표되는 심판에서 '심리'를 받을 준비가 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길은 시작이고, 진리는 중간이며, 생명은 끝이다. 우리가 첫 단계에서 정결하게 된다면, 우리는 길 위에 있는 것이며, 곧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길이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밝은 빛과 같아서, 완전한 날이 이를 때까지 점점 더 밝아진다. 잠언 4:18.

두 번째 단계는 그분의 진리로 이루어지는 의의 나타남이다.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17.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은 첫째 단계에 해당하고, 거룩하게 된 이들은 둘째 단계에 해당한다. 첫 두 단계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된 이들이 심판에 들어가 영생을 받도록 준비시킨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내면의 의는 겉으로 나타나는 의로 증거된다. 내면이 의로운 사람은 완고하고 무정하지 않으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힘에서 힘으로 나아간다. 진리로 성화되고 있는 자는 자제하며, 은혜가 영광으로 바뀔 때까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의는 전가된 의이며, 우리가 성화되는 의는 부여된 의이다. 첫째 것은 하늘에 들어갈 권리요, 둘째 것은 하늘에 들어갈 합당함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5년 6월 4일.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해 그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보일 반응의 문제를 거듭 다룬다.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머지않아 닥칠 위기가 깊은 실망을 낳을 것을 알고 계셨다. 이 네 장에는 성령을 "위로자"로 규정하고 정의하는 내용이 곳곳에 담겨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위로자"로 네 번 지칭하고, 요한일서에서는 한 번 사용되지만 거기서는 그 단어가 "변호자"로 번역된다. 그 단어는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구약성경에는 전도서 4장 1절과 애가 1장 9절, 16절에서 '위로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 이 세 구절 모두에서 압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으며, 그들이 처한 고통과 실망 가운데 그들을 지지해 줄 위로자가 없다고 밝힌다.

성령을 '위로자'로 규정하는 대목은, 예수께서 몇 시간 앞에 놓인 큰 실망을 대비하도록 제자들을 준비시키려는 문맥에 자리한다. 그 맥락에서 그는 자신의 부재 중에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함께하실 것임을 강조한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위로자의 맥락에서 규정하시면서, 위로자가 이루실 사역의 특징을 분명히 제시하신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을 거듭 언급하신 것은, 바로 그 주제를 이 본문의 주된 주제들 가운데 최우선에 놓는다.

요한복음 14:2-4, 18, 19, 28, 16:5-7, 10, 28, 17:11-13은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지체하는 때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구절들이다. 앞선 구절들에 더하여, 다음의 본문은 반복을 통해 그 지체하는 때를 강조한다. 이는 "주님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신다"는 이유 때문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때 그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리라'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들이 또 말하였다. "그가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그가 하시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예수께서 그들이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그 말에 관하여 너희끼리 서로 묻고 있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16-22.

14장부터 17장까지 최소한 스물한 절이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밝히고 있다. 그 기간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되어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간은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지체하는 때를 상징한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인한 실망은 첫 번째 실망 뒤에 이어지는 지체하는 때의 시작을 예언적으로 예표하고 있다.

성경의 첫 책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창조 기사를 발견하고 하늘의 삼위의 세 위격을 알아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하늘의 삼위의 세 위격을 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네 장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삼위의 세 위격을 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 요한의 네 장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예언적 흐름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누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임재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지만, 떠나실 때에는 그분이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음을 밝힌다. 성령은 그 위로자이지만, 그리스도도 또한 위로자이셨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보았느니라. 빌립이 그에게 말하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 네가 말하기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7-9.

토마스는 재림주의 내에서, 그 진리를 지지하는 증언들을 아마도 거듭거듭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삼위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나는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는 곧 진리의 영이니,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16-19.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는 "위로자"이고 성령은 "또 다른 위로자"이다.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고 위로자를 보았다. 성경에서 "위로자"라는 단어가 쓰인 다섯 번은 모두 사도 요한의 기록에 나온다. 다섯 번째 언급에서는 그 단어가 "advocate"로 번역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노라. 또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요한일서 2:1.

누구든지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로자가 계신다. 변호자란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를 말한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변호자라고 밝힌다.

누가 정죄하겠는가?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며, 오히려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로마서 8:34.

예수님은 죄인의 변호자이시며, 이는 곧 그분이 위로자이시기도 하다는 뜻이다. 같은 장에서 바울은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26, 27.

예수님과 성령님은 모두 보혜사로 불리며, 그러므로 두 분 모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변호자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의 본문에는 하늘의 삼위가 모두 나타나 있으며, 이것을 성경의 첫 책의 첫 진술과 성경의 마지막 책의 첫 진술과 함께 살펴볼 때 신격의 세 위격의 관계와 사역에 관한 빛이 더욱 밝아집니다.

아버지는 땅의 것들로써 묘사될 수 없다. 아버지는 신격의 모든 충만을 본체로 지니시며, 죽을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신다. 아들은 신격의 모든 충만이 나타난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그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아버지의 인격이 드러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는, 신격의 모든 충만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늘의 삼위에는 살아 계신 세 인격이 계신다. 이 세 권능,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 권능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고자 힘쓰는 하늘에 속한 순종하는 자들과 협력하실 것이다.

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 구주께서는 사람들을 죄의 종살이에서 속량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낮추는 자는 용서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실 뿐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다. 사함을 받은 죄인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거룩함의 길을 지켜 행하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된다. 그에게는 온전한 구원과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대한 믿음은 사죄의 확신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다. 그 능력에 날마다 단순히 의지하면, 사람에게 예리한 분별력을 주어 무엇이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지켜 주는지 분별하게 한다. 믿음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그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주이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인이 속량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가 자아를 온전히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덕을 실천한다면, 영생의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아버지와 아들을 늘 믿는 자에게는 성령도 있다. 성령은 그의 위로자이시며, 그는 결코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성경훈련학교,

1906년 3월 1일.

하늘의 세 분의 사역과 관계에 관한 더해진 빛에 더하여, 본문에서 하늘의 세 분이 식별된다는 사실은 이 네 장이 지금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봉인이 풀리고 있는 그 메시지에 부합되어야 함을 증언한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제시된 증거는, 십자가 이후에 찾아온 실망과 지체의 때가 첫 번째 실망 이후에 뒤따르는 실망과 지체의 때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세 가지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요한의 네 장에 제시된 역사가 첫 번째 실망의 정황을 나타낸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언급된 진리인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 절은 세 단어로 끝나며, 그 단어들 각각은 'truth'라는 단어를 이루는 세 글자 중 하나로 시작하고, 그 순서도 맞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God created and made."라는 세 단어로 끝난다.

그 세 단어의 첫 글자를 합치면 '진리'라는 단어가 된다. 창조 이야기는 '태초'로 시작하여 알파와 오메가를 나타내는 글자들로 상징되는 단어로 끝난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서두에서 예수님은 두 차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으로 불리신다. 알파와 오메가를 나타내는 그 세 글자는 요한복음의 그 본문이 창세기 서두의 예언적 흐름과 요한계시록 서두의 예언적 흐름과 함께 결합되어야 함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증거를 제공한다. 그 증언은 보혜사의 사역에 대한 설명 속에서 확인된다. 보혜사의 사역은 바로 그 동일한 세 히브리 글자로 상징되는 세 단계의 사역이다.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은 이 네 장을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메시지라는 맥락 속에 놓을 수 있게 해준다.

일곱 우레는 그분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천사의 강림이라는 이정표(시점)로 시작되는 네 가지 특정한 이정표(시점)와 세 가지 특정한 기간을 나타낸다. 그 이정표는 하나의 시점이었다. 둘째 이정표(시점)는 첫 실망으로, 그것이 지체하는 때라는 기간을 개시한다. 그 지체하는 때는 봉합되어 있던 진리가 풀려나는 셋째 이정표(시점)로 이어지고, 그것이 한 운동을 일으킨다. 그 운동은 심판으로 나타나는 넷째 이정표(시점)에서 결론에 이른다. 그 네 가지 이정표와 세 가지 기간 각각이 하나의 우레를 나타내며, 합하여 일곱 우레가 된다. 또한 그것들은 넷과 셋의 조합을 나타낸다.

앞선 글들에서 우리는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선구자들의 이해가 '4-3의 조합'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처음 네 교회, 인, 나팔은 마지막 세 교회, 인, 나팔과 구별된다. 일곱 천둥은 네 개의 이정표를 나타내지만, 그 네 이정표 안에는 세 기간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 인, 나팔이라는) 세 증인 위에 세워진 '4와 3'의 신적 조합이 있으며, 그 증인들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천둥에 나타난 '4와 3' 조합의 타당성을 증언한다.

그러나 일곱 우레로 대표되는 역사의 흐름 속에는 일곱 우레라는 상징과는 구별되는 세 개의 이정표를 지닌, 숨겨져 있고 별개의 또 다른 예언의 흐름이 내재해 있다. 그러므로 이제 봉인이 풀리고 있는 숨겨진 역사와 일곱 우레의 예언적 관계를 고려해 보면, 일곱 우레는 네 개의 이정표(시간의 지점)를 제시하고 숨겨진 역사는 세 개의 이정표(시간의

시점)를 제시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회, 인, 나팔, 우레처럼 숨겨진 역사도 일곱 우레의 네 개 이정표와 연결된 세 개의 이정표를 나타낸다. 숨겨진 역사는 또한 3-4의 결합을 지니고 있다.

일곱 천둥 속에 내재된 숨겨진 역사에는 각각 '한 시점'인 세 개의 뚜렷한 이정표가 있으며, 그 세 이정표 중 첫째와 마지막은 실망을 나타낸다. 첫째와 둘째 이정표 사이에는 분명한 '기간'이 있고, 둘째와 셋째 시점 사이에도 분명한 '기간'이 있다.

"disappointment"라는 단어는 약속을 놓친다는 개념에서 발전했으며, 그 정의에는 한 시점에 대한 강조가 담겨 있다. 자정 또한 특정한 시각이다. 그 숨겨진 역사는 두 개의 기간, 곧 지체의 때와 일곱째 달 운동으로 구분된 세 개의 시점으로 묘사된다.

숨겨진 역사의 첫 번째 이정표는 실망을 가리키고 마지막 이정표 또한 실망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실망에서 마지막 실망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개혁선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 단계를 지닌 숨겨진 예언의 선이다. 또한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을 지니고 있는데, 'truth'를 구성하는 세 글자가 실망으로 시작하여 실망으로 끝나는 세 이정표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일곱 천둥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역사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현재 봉인을 떼고 있는 진리이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본문은 앞선 장에서 최후의 만찬으로 도입되는데, 이 네 장의 메시지가 먹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네 장은 겻세마네로 걸어가는 장면으로 끝난다. 서사는 식사에서부터 십자가의 위기가 시작될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전개된다. 예언적으로 볼 때, 이 네 장의 배경은 심판 전에 먹어야 할 마지막 메시지를 규정한다. 심판의 종결로 이끄는 그 메시지는, 심판이 종결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에서 봉인이 풀리는 메시지이다.

제자들과 예수는 예언의 역사 속에서 지체하는 때에 대해 알림을 받는 지점에 와 있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주께서는 한밤중 외침의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생길수록 그의 손을 거두셨지만, 사무엘 스노의 메시지를 낳은 그 이해는 또한 밀러주의자들에게 그들이 열 처녀의 지체하는 때에 들어와 있음을 알려 주었다. 제자들은 막 최후의 만찬을 마쳤고, 그 메시지를 소화하는 동안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의 네 장에서 그 지체하는 때를 설명하셨다.

사무엘 스노가 깨달은 바는 연재 기사들로 문서화될 수 있는데, 그 기사들은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로 표현되는 최종적 이해로 발전해 갔다. 그의 메시지가 발전해 가는 동안 그는 일련의 야영 집회들에서 그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 야영 집회들로 이어진 연재 기사들은 결국 그를 엑서터 야영 집회로 이끌었는데, 그 집회는 옛새 동안 계속되었다. 예언적으로 볼 때,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전개된다. 요한복음의 네 장은 그 메시지가 전개되는 예언적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요한복음의 네 장에서는 성령의 사역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이라는 세 단계로 정의되어 있다. 이 세 단계는 또한 일곱 천둥 속에 새겨진 숨겨진 역사의 세 가지 이정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그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오시면,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는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는 그가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7-14.

밀러파의 역사에서, 예수께서는 한밤중의 외침 때 지체의 때를 끝내기 위해 재림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손을 거두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거나 보내셨다. 보혜사로 묘사된 성령께서 실망을 가시게 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택하심을 입었으나 실패한 예측으로 인한 실망 때문에 당혹해하던 이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이전에 사도 요한, 에스겔, 예레미야가 모두 입에서 꿀처럼 달콤한 작은 책을 먹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 세 예언자들 사이에는 흔히 간과되는 의도적인 구별이 있다.

에스겔은 작은 책을 먹고 하나님의 배도한 교회에 전할 메시지를 받은 자들을 설명하는 예로 제시된다. 에스겔은 먹은 책이 이후에 수행해야 할 사역을 규정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는 이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대표한다. 그의 메시지는 한때 선택받았던 백성들을 불사르게 될 다발들로 묶는다. 요한의 네 장에서 예수님은 에스겔의 사역의 목적을 밝히신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또한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또한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은 내 이름 때문이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가릴 핑계가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모두 미워한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가 이루어지려 함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요한복음 15:20-26.

그가 책을 먹음으로써 시작된 에스겔의 사역은 거부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 거부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들의 유예 기간의 잔을 가득 채웠다는 증거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내게 반역한 반역의 나라에게 보낸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오늘 이 날까지 내게 범죄하였느니라. 그들은 뻔뻔한 자식들이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리라. 에스겔 2:3-5.

에스겔의 사역은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그러하셨던 그리스도처럼, 옛 언약의 백성을 고발하는 증인의 역할이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메시지는 옛 언약의 백성을 멸망의 불에 던져질 운명의 가라지로 한 다발로 묶어 두는 최후의 경고 메시지다.

그때 나는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와 동행하던 천사가 이르되, '그의 일은 두렵다. 그의 사명은 엄중하다. 그는 가라지 가운데서 알곡을 가려 내며, 하늘의 곡간을 위하여 알곡을 인치거나 묶는 천사이다. 이러한 것들이 온 정신과 모든 관심을 사로잡아야 한다.' 초기 문집, 118.

작은 책을 먹는 것으로 상징된 사역은 힘센 천사가 손에 작은 책을 들고 내려올 때 시작된다. 첫째 천사의 역사에서는 1840년 8월 11일에, 셋째 천사의 역사에서는 2001년 9월 11일에 그것이 일어났다. 그 두 날짜는 각각 둘째 화의 이슬람과 셋째 화의 이슬람과 연관된 예언의 성취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사야는 22장에서, 필라델피아인들과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닥친 환상의 골짜기의 위기를 묘사하면서, 1840년에는 개신교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2001년에는 재림교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라오디게아인들이 '궁수들에게 결박되었다'고 밝힌다. 성경 예언에서의 궁수들은 이슬람을 가리키며, 이슬람에 관한 환상이 1840년과 2001년에 성취되었을 때 이전의 선택된 백성들은 에스겔로 대표되는 이들이 제시한 이슬람의 예언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때 그곳에서 가라지로 결박되었다. 에스겔의 사역은 '그들의 죄'를 덮고 있는 '겉옷'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내셨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어찌하여 이제 네가 온통 지붕 위로 올라갔느냐? 소요로 가득한 너, 소란스러운 성읍아, 즐거운 성읍아! 네 살해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장에서 죽은 것도 아니로다. 네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도망하였고, 궁수들에게 사로잡혀 결박되었도다. 네 가운데서 발견된 자들은, 멀리서 도망하여 온 자들까지도, 모두 함께 결박되었도다. 이사야 22:1-3.

하나님께서 그 소년 [이스마엘]과 함께하셨고,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며 궁수가 되었다. 창세기 21:20.

목시가 없으면 백성은 멸망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 잠언 29:18.

예레미야는 그의 영광으로 땅을 비추기 위해 내려온 강한 천사가 나타났을 때 책을 먹었으나, 1843년의 실패한 예언으로 인한 실망을 겪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는지 예언적으로 생각한다. 그 언급은 예레미야를 하박국 2장과 연결한다.

나는 내 파수대에 서서 망대 위에 자리를 잡고,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을 받을 때 무엇으로 대답할지를 보려고 지켜보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환상을 기록하고 그것을 판에 분명히 새겨, 읽는 자가 달릴 수 있게 하라. 이 환상은 아직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끝에 이르면 그것이 말할 것이며 거짓되지 않으리라. 비록 더딘 듯해도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올 것이니 지체하지 않으리라. 보라, 마음이 높아진 자는 그의 속에 정직함이 없으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1-4.

요한은 달콤함과 쓰라린 실망을 경험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역사 전체를 대표했다.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작은 책을 내게 달라'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가져다가 먹어라. 네 배에는 쓰겠으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그것을 먹자마자 내 배는 쓰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0:9, 10.

에스겔은 1840년 8월 11일과 2001년 9월 11일에 천사가 강림했을 때 시작된, 옛 선민을 마감하는 예언적 기별을 제시하는 사역을 대표한다.

그러나 너 인자야,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너는 그 패역한 집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열어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내게로 보내어졌고 그 손에 두루마리 한 권이 있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니, 그 안팎에 글이 쓰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였다. 이에 내가 입을 열었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였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 배로 먹고,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창자를 채워라, 하였다.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 에스겔 2:8-3:3.

예레미야는 1840년 8월 11일부터 한밤중의 외침 직전까지의 역사를 나타낸다.

주의 말씀을 찾아 내가 그것을 먹었고, 주의 말씀은 내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이는,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비웃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주의 손 때문에 나는 홀로 앉았으니, 주께서 나를 분노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은 끊임없고, 나의 상처는 낫지 않으며 치유되기를 거부하는가? 주께서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와 같으시며, 마르는 물과 같으시겠는가?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네가 내 앞에 서리라. 네가 천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가려내면, 네가 내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로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너를 이 백성에 대하여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싸우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하여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악인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며, 포악한 자의 손에서 너를 속량하리라. 예레미야 15:16-21.

예레미야는 우리의 현재 역사와 메시지를 대표한다. 현재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고통'이 '영구할' 것이며 자신의 '불치의 상처'—다시는 치유되지 않을 상처—라고 생각하여 '분노'로 '가득' 차게 된 그 시점에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다. 그들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서 분리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책을 처음 먹었을 때처럼 '기뻐하지' 않는다. 그때 그 책은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을 위한 권면이 있다. '네가 돌아오면' 또한 '네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 구절의 '내가 다시 너를 데려오리라'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신다는 뜻이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는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7-10.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도 그들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그들이 이 일들을 행하면,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예레미야(우리)에게, 그가 자기 백성을 '악인'을 대적하는 '둘러싼 놋 성벽'으로 삼을 것이며, 그 후 '무서운 자들'이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가르친다. '악인'은 마태복음의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다니엘의 표현이다. '무서운 자들'은 일요일 법령 위기 동안 현대 바빌론의 삼중 연합을 가리킨다.

세 예언자의 증언은 모두 같은 역사를 다루지만, 그 역사의 서로 다른 세 측면을 다룬다. 예레미야는 막 첫 실망을 겪었으나 아직 한밤중 외침의 이정표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대표한다. 우리는 2020년 7월 18일 이후로 바로 이 지점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우리가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돌아온다면, 미국이 용처럼 '말할'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말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보여 주는 역사는 우리의 현재 역사이며, 그것은 일곱 우레 안에 있는 세 가지 숨겨진 이정표로 대표되는 역사이다. 또한 그것은 요한복음의 본문이 예언적으로 설정된 역사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네 장의 강조점은 자신이 거짓을 믿었는지, 입에 그렇게도 달았던 그 메시지가 사실은 말라버리는 물이었던지 의문하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2001년 9월 11일부터, 상징적 3일 반 후로 표현된 지연의 때가 시작된 2020년 7월 18일까지의 역사를 나타낸다. 내가 '상징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시간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2020년 7월 18일이 두 증인, 곧 성경과 예언의 영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처럼 3일 반 동안 거리에 내버려진 때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들은 두 감람나무요 땅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에게는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원하는 때마다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가 있느니라.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며 그들의 시체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며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큰 성의 거리에 놓여 있으리라. 백성과 각 족속과 언어와 나라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고 그들의 시체들을 무덤에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음이라. 요한계시록

11:3-10.

예레미야의 상태가 제시하는 증언은 실망 이후이지만 한밤중 외침 이전의 시기에 해당한다. 예레미야는 한밤중 외침의 기별의 음성이 되기 전에 돌이켜야 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네 장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하며, 일곱 우레 안에 감추어진 역사에 의해 표상된 역사이기도 하다.

요한의 네 장에 걸친 증언에서 '보혜사'와 관련된 빛을 고려해 보면, 우리는 그 서사가 2020년 7월 18일, 실망과 지체의 때, 봉인이 풀린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 그리고 다가오는 일요일 법령의 심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게 하는 풍부한 증거를 발견한다. 그 장들은 숨겨진 역사의 예언적 구조 위에 세워져 있다.

머지않아 다가올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과 같이 되려면, 지금 우리의 일은 '천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가려 내는 것'이다. 또는 같은 일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아주 가까운 장래에 기치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는 민족들을 위한 깃발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땅의 네 모퉁이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한데 모을 것이다. 이사야 11:12.

다음 글에서 이 네 장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